

자전거 출퇴근

코로나 19가 유행할 즈음, 애들 교육 때문에, 10년간 살던 고등과학원 관사에서 나와,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게 되면 모든 게 낯설다. 특히나 연구실까지 지척의 거리에 살다가 그렇게 멀리 나와 살게 되니 배고프면 잠시 집에 들른다는, 새벽 3시에 연구실로 향했던 호사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 생전 처음 가는 곳에 출장을 가면 의례히 거치는 절차가 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싼 값에 가장 적은 노력을 들이고 집에서 연구실 혹은 연구실에서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몸소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된다.

대치동에서 고등과학원까지 따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였다. 나의 자전거 출퇴근의 효율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마스크, 지하철처럼 갑갑한 걸 싫어하다보니 자전거 출퇴근은 내게 최적의 해답으로 낙점이 되었다. 아파트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탄천 방향으로 가면 자전거 도로가 나 있고, 이 길이 한강으로 이어진다. 보통 나의 자전거 출퇴근 길은 “은마아파트 - 탄천 - 한강 남단 - 영동대교 - 한강 북단 - 청계천 - 정릉천 - 고등과학원” 이렇게 총 16km이다. 영동대교를 건너지만 이 루트는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부분, 청계천을 따라가는 부분이 S자로 휘어져 있어서 성수대교를 건너 왕십리를 거쳐서 가는 것보다 2km 정도 더 돌아가는 셈이다. 좀 늦을 것 같으면 성수대교를 건너 차도를 따라가서 출/퇴근 시간을 10분가량 단축할 수는 있지만, 이 성수대교-왕십리 경로는 차도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다.

탄천으로 내려가는 램프로 가려면 수백 미터 정도의 산책로를 따라 가야한다. 이사 가고 나서 얼마 안돼 밤에 랜턴을 키고 퇴근 하다가 나이 지긋한 한 어르신에게 잡혀서 여기서 자전거 타면 안된다는 핀잔을 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날 아침, 산책로 주변을 아무리 둘러 봐도 자전거 타지 말라는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기에 또 타고 다녔다. 산책로 시작하는 곳에 보면 이륜 원동기 탑승 금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며칠 후 출근하다가 산책로 옆의 운동기구에서 운동하시던, 보아하닌 퇴임 후의 삶을 꾸리고 계신 또다른 어르신에게 잡혀서 또 한 소리를 들었다. 왜 그러시냐고 되물으니, 원래 자전거 타면 안되는 거라면서 구청에 확인해 보라고 하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훈계를 한다. 아니 아쉬운 사람이 해야지 내가 왜 해? “그러시는 아저씨가 직접 확인 하세요”라고 쓰아 붙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내 갈 길을 갔다. 난 원래 평화주의자라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웬만해서는 다투기를 싫어하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가끔 이런 식으로 남의 삶에 간섭을 함으로써, 나의 잠자고 있는 야성에 불을 지핀다. 하지만, 그로부터 1주후에 바닥에 자전거 탑승금지 원형 마크가 산책로 곳곳에 찍혀 있었다. 이후 지도를 보다가 산책로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서 지금은 다른 길로 다닌다. 아무튼 강남에 입성한 지 얼마 안되어 ‘강남불패’의 신화(?)를 자전거 출퇴근 하다가 재확인한 셈이다.

정릉천 진입하는 램프, 그리고 영동대교 옆 보행로에는 언제부턴가 자전거 탑승 금지라는 표시가 새로 붙었다. 보행자가 있을 때는 자전거를 끌고 가라는 얘기인지, 혹은 그러거나 말거나 무조건 탑승하지 말라는 얘기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 탑승하다가 걸리는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는 얘기도 없다. 그냥 탑승 금지다. 이용하는 서민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날 갑자기 구청에서 정하고 실행하면 그만인가? 정릉천 진입 램프야 50m 정도 끌고 가면 되지만, 영동대교는 끌고 가기에 너무 긴 거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법 집행에 희생이 될지 모르는 것을 감수하고 오늘도 영동대교를 건넌다.

자전거 타다가 한번 크게 넘어진 적이 있다. 고등과학원 7 호관 옆 비탈길에서 잠시 딴 데 신경을 팔다가 과속방지턱에 걸려 처참히 넘어져 응급실 신세를 졌다. 얼굴로 떨어져서 턱, 입술, 광대뼈 주변에 찰과상을 깊게 입었다. 그해 여름,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채 학회에서 발표를 했다. 거울을 보며 상처부위를 확인할 때마다 거무스럽게 착색된 상처부분이 속상했지만, 겨울쯤 되니 많이 희미해졌고 4 년이 지난 지금은 그 때 다친 부분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물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2006 년에 샌디에고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갔을 때 당시 거금 500 불을 주고 구입한 싸이클이다. 올해 17 번째로 아직은 탈 만한데, 기어변속이 부드럽게 되지 않은 것이 신경이 쓰여 근처 자전거포에 수리하러 갔더니 사장님이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맞는 부품이 없다며, 수리하는데 돈들이지 말고 새로 구매를 하라는 충고 아닌 충고를 해 주셨다. 한강에 나가 보면 커다란 셉글라스와 전신에 딱 붙는 복장에 탄소소재의 싸이클을 타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는데, 페달을 밟으며 천천히 나아가는 내 옆을 순살같이 지나친다. 보통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평균속도가 30 km/h 정도가 된다고 한다. 난 그저 그들의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부러워하며 열심히 따라갈 따름이다. 한번은 오랜만에 만난 선배하고 각자 타고 다니는 싸이클 얘기를 했다. 자신은 200 만원 짜리 타고 다닌다고 하며, 첨언하기를 나이도 들어가는데 돈은 모아서 뭐하냐, 자기 자신에게도 투자를 좀 해라. 그 얘기를 아내에게 전하며, 나도 200 만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다고 했더니, 나쁜 친구들은 멀리하라는 대답을 들었다.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한강변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얻는 즐거움이 있다. 퇴근할 때 보는 한강다리과 제 2 롯데월드를 중심으로 수놓는 야경에 눈이 즐겁고, 새벽에 일찍 출근할 때면 가끔 자욱하게 피어 오르는 물안개가 장관을 이룬다. 초봄에는 응봉 기슭에서 개나리가 만개한 걸 볼 수 있고,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한강변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든다. 가끔 철새들이 강의 표면을 시커멓게 덮으며 천천히 활주하다가 비상하는 장관을 연출할 때면, 그걸 동영상에 담느라 잠시 멈춰 선다.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출근할 때 항상 조깅하는 사람이 몇 있는데, 외국에서야 서로 몇번 마주치면 인사를 하겠지만, 한국에선 그러면 오해사기 십상이라, 그 시간에 매번 조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 지에 대해 그냥 마음속으로만 궁금해 한다. 한여름엔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한겨울에는 영하의 칼바람을 견뎌야 하지만 이런 것 또한 지나간다. 자전거 출퇴근은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매일 반복되는 자전거 출퇴근의 무료함을 위해 이어폰을 꽂는다. 장엄한 클래식에서 최신 유행가요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듣다가, Quanta magazine, Science 팟캐스트, TED talk 혹은 eBook 을 들으면서 가고, 그것마저 지겨워지면 채널을 바꿔가며 라디오를 듣는다. 한때는 자전거에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해서 유튜브 강의를 청취하면서 가기도 했는데, 동시에 여러 감각기관을 쓰다가 결국은 집중을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선 그만 두었다. 자전거 출퇴근에 음악이 있으면 듣는 것이고, 아무것도 애써 듣지 않아도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다.

자전거를 타는 시간은 많은 생각들에 복잡해진 머리를 일단 리셋이 시키고 다시 세상과 싸울 수 있게 마음을 정비할 수 있는 사색과 명상의 시간이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안 풀리는 연구, 앞으로 할 연구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글을 쓰고 말을 해야 내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지,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여유를 준다.